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蔡旭 ■ 편집인 : 金尙謙

Vol. 13, No. 2, 2010년 6월

2010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보다 균형 잡힌 보고서로의 추가수정
작업 요청과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활
용 제안. 보고서 내용검토와 합의도출
을 위해 통상장관회의(MRT)에 제출

▶ 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공급망연결사업
과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작업계
획, 투자로드맵, 표준/무역기술장벽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진행상황 검토. 한
국은 FTAAP 실현과 역내경제통합 강
화를 위한 “REI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
조사” 사업 제안

▶ 다자무역체제지원

다자무역체제지원과 DDA 협상의 조
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재결의와 국제
경제무역환경 논의와 보호무역주의 저
지를 위한 APEC 최근활동상황 검토

▶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2010년 이후의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
다 제안서 논의와 한국의 성장전략 지
지. 11월에 개최되는 G20과 APEC 정
상회의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 필요성

▶ 인류안보

식량생산성 증대와 기후변화에의 적응
력 제고,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 등 논
의

APEC SOM 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0. 5. 26~6. 6, 일본 삿포로)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 II) 및 관련회의가 5월 26~6월 6일 삿포로에서 개
최되었다. 2010년 APEC 주요의제와 더불어 지역경제통합 과제의 하나로서 한국은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REI))”를 칠레, 페루, 필리핀과 함께
제안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장국 일본
의 보고서 추가수정 작업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과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함이 요청되었다. 15개분야의 무역·투자 자유화진전도 평가와 관련하여 분
야별/산업별 단순평균 실행세율 비교분석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계자료 활용이 제
안되었다. 고위관리들은 상당수 개도국 회원국들의 보고서 내용이 자유화진전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관세 등 자유화가 미진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투자자유
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균형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 내용검토와 합의도출을 위해서 통상장관회의(MRT)에 제출되었다.



▶ 지역경제통합

고위관리들은 2010년도 REI 추진을 위해 CTI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연결”사
업과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작업계획, 투자로드맵, 표준/무역기술장벽 등 다양

한 이니셔티브 진행상황을 검토하였고, 이 분야에서 2010년에 이루어져야 할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우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PEC 역내번영을 위해 REI 촉진노력이 중요함이 강조되었으며, 한국이 FTAAP 실현경로(pathway) 개발논의 진전 차원에서 “REI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사업을 주관하여 페루, 칠레, 필리핀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 언급되었다. 각 회원국별 REI 사업추진상황 및 우선순위를 소개하였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급망연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또한 EGS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최근 역내 FTA 진행 동향보고가 이루어졌고 브루나이는 TPP(Trans-Pacific Strategic Partnership Economic Agreement) 협상동향에 대해서, 베트남은 ASEAN에 대해서, 중국은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FTAAP 관련하여 APEC 차원의 역할과 보고르 목표 이후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자무역체제지원

다자무역환경관련 이슈 논의가 이루어졌고,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새로운 촉진방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DDA 협상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균형 잡힌, 야심찬 결론으로의 지속적인 결의가 제창되었다. 국제경제 무역환경 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APEC 최근활동상황 검토가 이루어졌다. 보호무역주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회기간 사이에 회원국 및 관련분야의 견해와 응답을 받아 수정된 성장전략 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후 기본적 공동이해(basic common understanding)를 이

끌어냈다. 2010년 이후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Friends Group이 작성한 제안서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이루어졌다. 일본은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안정감 있는 성장전략 보고서”의 수정본을 회람시켰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회원국들은 재무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와의 연계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상세내용 및 전략채택에 있어 SOM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작업계획 및 부속서 포함문제에 대해서는 부속서 이외의 방법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한국은 성장전략을 지지하고 11월에 개최되는 G20 및 APEC 정상회의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캐나다와 미국 등이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인류안보

작업단과 대책위원회가 인류안보 문제에 대한 진전상황을 보고하였고, 향후작업을 위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였다. FOTC는 오는 10월 16~17일에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제1회 식품안전장관회의 준비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였다. 일본은 식품안전증진을 위해 식량생산성 증대 및 기후변화에의 적응력 제고, 농업부문에의 투자증대 등이 주요 논의의제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식품안전추진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은 보건실무그룹(HWT), 반테러특별그룹(CTTF) 등을 통해 보건증진 및 반테러활동들이 APEC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하며, 특히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달성을 위해 “APEC 에너지 효율” 기금으로 2010년에도 자발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위관리들은 관련실무그룹과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2010년 수행과제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APEC 개혁

APEC 정책고려(policy deliberations)에 대하여 PSU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PSU 임무와 기금조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PSU 재원 조달을 위해 일본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 납부를 요청하였는데,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이 재정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PSU가 APEC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기능하려면 회원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므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무확장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장기간과 PSU 작업프로그램 논의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SOM 참여에 대한 추가논의가 결의되었다. 새로운 PSU Director 선출추진 합의가 이루어졌고, 빠른 시일 내에 선발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A P E C

최근행사

2010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2010 APEC 통상장관회의

(2010. 6. 5~6, 일본 삿포로)

2010 APEC 통상장관회의가 6월 5~6일 양일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10 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일본 외무성장관 Katsuya Okada와 일본 경제무역산업부장관 Masayuki Naoshima가 공동의장을 맡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인 파스칼 라미(Pascal Lamy)와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APEC 통상장관들은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를 비롯한 2010년 APEC 우선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통상장관회의에서 이행평가 보고서의 주요부분(main thrust of the assessment report)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도달하였고, 균형적 접근방안 및 결론부분 등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회기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 참가 13개국(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싱가포르, 일본, 칠레, 페루, 캐나다, 한국, 호주, 홍콩)의 보고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은 최종평가보고서를 오는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것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2. 지역경제통합

통상장관들은 2009년 정상회의 지시사항인 FTAAP pathway 발굴과 관련한 결과물을 2010년 11월 각료회의 시 보고할 것을 고위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통합 주요분야인 표준화/무역기술장벽, 원산지규정 단순화, 공급망연결, 우수공인업체(AEO) 프로그램,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명성제고, 지적재산권 강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 사업용이(EoDB), 지역경제통합(REI) 역량강화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2010년 11월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다.

3. 다자무역체제지원

“다자무역체제지원을 위한 별도성명(Stand-alone Statement)”을 채택하고,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Standstill 결의를 2011년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5월 27일에 개최되었던 OECD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process)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APEC 차원에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촉구 등 정치적 이행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은 제네바 주재 APEC 코커스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미국과 홍콩은 DDA 협상진전을 위해서 SOM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성장전략과 새로운 구조개혁

ECOTECH과 역량강화분야에서 APEC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다년간(multi-year) 행동계획으로 구성한 성장전략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오는 11월까지 전략을 최종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성장전략에서 필수적인 새로운 구조개혁 아젠다 개발에 대한 진행사항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5. 인류안보

통상장관들은 긴급사태 대비 및 반테러주의, 부패방지, 보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인간안보에 대한 APEC의 노력을 강조하며, 무역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줄이고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경제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Second meeting for 2010
제2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2010. 6. 1~2, 삿포르)

2010년 6월 1~2일 일본 삿포르에서 제2차 APEC 무

역투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무역산업부의 엘리자베스 켈리아(Elizabeth Chelliah)가 의장을 맡았고, 본 회의에서 APEC 주요과제와 이에 대한 2010년 CTI 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 회의 주요 이슈별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무역주의체제지원 및 무역원활화

한국은 DDA 무역원활화 협상 논의동향과 동 협상이 APEC에 대해 가지는 합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APEC 회원국들은 WTO DDA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나 APEC 회원국 간 공조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향후 WTO DDA 무역원활화의제 기여방안으로 APEC 회원국 간 소그룹 내 공조강화와 공급망연결 이니셔티브(SCI) 8개 병목점별 행동계획과 WTO 작업의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CTI 의장은 단일통관창구(SW),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System)와 같은 WTO 작업 중 일부는 APEC이 이미 추진 중인 것이므로 향후 세부적인 기여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2. FTAAP 모색 및 수렴(Convergence) 도모

한국은 2009년 정상성과사업으로 시행된 “FTAAP의 경제적 영향 추가분석연구(Further Analytical Study on the Likely Economic Impact of an FTAAP)”의 후속사업으로 “지역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조사(Capacity Building Needs for Strengthening REI)”에 대한 컨셉 페이퍼를 발표하였고, CTI 승인을 받고 고위관리회의에 제출하였다. 동 사업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함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이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의사를 밝힌 칠레, 페루, 필리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오는 9월까지 각 회원국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진전상황 및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태국은 개도국의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FTA 체결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역

량강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조사 및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태국이 주도한 유사성/상이성 연구 결과, 역내 FTA 간 동 분야 유사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사성정도가 높은 분야에서 증진작업을 우선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3. 기업친화적 원산지규정

관세와 원산지규정에 관한 APEC 투명성 이니셔티브(APEC Transparency Initiative on Tariffs and ROOs)와 관련하여 일본은 APEC 회원국 내 원산지 규정과 관세정보를 링크해놓은 포털사이트(WebTR) 개발현황을 보고하고, 금년 AMM까지 회원국별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WebTR에 링크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2010년 APEC 합동각료회의(AMM)까지 회원국별 영문 포털사이트 개설을 권고하였고, ABAC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WebTR 기능강화 및 상용화 등을 통한 기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의 원산지자율증명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회원국 참여를 요청하였다. 회원국의 이해와 추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말레이시아와 12월 필리핀, 2011년 베트남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국의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관련전문가 및 관리들의 역량강화를 꾀할 예정이다.

4. APEC 서비스 이니셔티브

서비스행동계획 매트릭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서비스분야 작업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구체적인 우선추진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연계 및 성장전략 등 GOS 내에서 다양한 입장이 상존하고 있음을 GOS 의장이 5월 29일 개최된 GOS 회의결과와 함께 발표하였다. 일본은 서비스분야가 REI 우선추진분야인 만큼 금년 정상성과사업으로 발굴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페루와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제안하여 오는 9월 센다이에서 개최되는 “신성장전략에서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역할 역량강화 워크숍(Workshop for Capacity Building

on the Role of Cross-Border Services Trade in New Growth Strategies)”에 대한 지지와 공동후원을 요청하였다.

5. 투자

일본은 2007년 시작된 투자원활화행동계획(IFAP)이 2010년 완료됨에 따라 2010년 투자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특히 투자관련 민관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PEC 투자협의체제” 구축제안에 따라 유사한 협의체가 있는지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제3차 무역투자위원회 회의까지 동 투자협의체제 제안을 보완 및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5월 31일에 개최된 무역정책대화(Trade Policy Dialogue)와 투자전문가그룹(IEG) 논의에 기반을 두어 국제투자협정(IAs)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제고와 APEC-IAs 간 연계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6. 표준/무역기술장벽(TBT)

미국은 5월 31일 무역정책대화에서 역내 상이한 기술표준이 기업의 거래비용부담을 증가시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바, 무역기술장벽관련 협력제고를 위한 “2010 표준 및 기술장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CTI 성과사업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이니셔티브는 1) 기술장벽 방지를 위한 사전규제협력, 2) 기업참여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3) 적합성평가관련 이슈논의, 4) 표준/기술장벽관련 역량강화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고, 고위관리들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고위관리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장은 화학대화(CD), 표준·적합 소위원회(SCSC) 등 유관 산하실무그룹에서 규제협력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7.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EGS Project Mapping Matrix를 정기

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자원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EGS 시장현황 및 환경조사를 제안하였고 회원국들의 추가참여를 독려하였다.

8. 공급망연결

공급망연결 이니셔티브(SCI) FOTC 주도국 홍콩과 8개 병목점별 행동계획 주도국들은 2013년을 1차 달성시기로 하는 SCI 행동계획 초안완성을 보고하였고, 금년 합동각료회의(AMM) 보고를 목표로 각 행동계획별 조정국(coordinating economy), 하부협의체(sub-fora) 또는 실무그룹, ABAC의 추가협의를 통해 초안을 세부내용 개발 및 최종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은행은 Aid for Trade Facilitation 분야에서 APEC과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의장제안으로 동 협력사업을 관련 병목점별 행동계획에 추가하기로 동의하였다. 교통분야 행동계획에서 항공분야와 관련하여 조정국 싱가포르의 향후 실현가능한 행동요건을 MALIAT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양자(지역) 항공협정연구와 MALIAT 논의를 상호 별도항목으로 제시하여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9. 디지털경제 및 지식재산권

회원국들은 FOTC가 제출한 “2010년 디지털경제와 지식재산권 작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무역투자위원회는 디지털경제 및 지식재산권이 환경상품 및 서비스(EGS)와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Growth Strategy)에 기여하는 큰 축임을 강조하였다.



향후행사

APEC Study Centre Consortium Conference

APEC 연구센터 컨퍼런스

(2009. 7. 8~9, 일본 도쿄)

연락처 : 임경수 연구원 /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Tel : 02-3460-1031

3rd Meeting of ABAC

제3차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회의

(2010. 8. 24~27, 태국 방콕)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APEC SOM II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10. 9. 15~26, 일본 센다이)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Concluding Senior Officials' Meetings

최종고위관리회의

(2010. 11. 7~8,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22nd APEC Ministerial Meetings

제22차 APEC 합동각료회의

(2010. 11. 10~11,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18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18차 APEC 정상회의
(2010. 11. 13~14, 일본 요코하마)

연락처 : 박혜진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 02-2100-7657



P E C C

최근행사

USAPC Annual Conference

(2010. 5. 6, 미국 워싱턴 D.C)

USAPC가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5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미국과 아·태지역의 관계: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U.S.-Asia Pacific Relations: Transitions In a New Era)”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연차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들이 태평양 연안 모든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APEC 국가들에게 있어 TPP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논의하였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번 컨퍼런스는 총 네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론 커크(Ron Kirk)의 발표가 있었다. 상세 회의내용은 동서문화센터(East West Cente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행사

PECC-ADB-ADB Conference: “A Post 2010 Trade Agenda for the Asia-Pacific”

(2010. 7. 6~7, 일본 도쿄)

PECC, ADBI, IDB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PECC Trade Conference가 오는 7월 6~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OPEC의 양수길 회장은 세션10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Broader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의 Panel Discussant로, 김상겸 사무국장은 세션8 “A Northeast Asian Perspectives on EAFTA, CEPEA, TPP and a possible CJK FTA”에서 발표자로 동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K O P E C

최근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10. 5. 4,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5월 4일 서울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전략과 준비현황”을 주제로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을 비공개 조찬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이창용 G20 기획조정단장의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에 관한 발제에 이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양수길 KOPEC 회장은 동 회의가 G20 정상회의의 진행상황을 듣고, 참석한 정부 고위관료와 학계 저명인사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을 밝혔다.

이창용 단장은 동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와 한국의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G20 정상회의 의제는 “경기회복 지원과 출구전략”,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그리고 “국제금융기구(금융규제) 관련 개혁”의 세 가지 기존과제(Follow-up Agenda)와, 금융안정망과 관련하여 “외화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의 제도화”, 세계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

발격차 완화” 그리고 정부주도 G20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차원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Business Summit을 개최”한다는 Newly Focused Agenda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G20가 단순히 temporal 위기관리기구가 아니라, 위기 이후에도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때문에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가교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KOPEC 아·태전략포럼 제3차 회의 (2010. 5. 27, 서울)

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내외, 그리고 국내 민관학계의 의견교환을 위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조선폰텔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도전과제와 G20(Global Governance: Challenges and the G20)”을 주제로 제3차 KOPEC 아·태전략포럼을 비공개 조찬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미국 Brookings 연구소와 캐나다의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에서 Senior Fellow로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임원혁 박사와 함께 KDI-Brookings-CIGI의 G20 Summit의 기구화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Colin Bradford 박사가 연사로 참석하여 G20 현황과 아젠다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Bradford 박사는 동 회의에서 서울 G20 회의 및 G20의 새로운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표성(Representativeness)과 효율성(Effectiveness) 간의 조화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G20 회의에 더 많은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은 대표성을 얻는 대신 효율성을 잃는 것이며, 반대로 G20 회의에서 다른 non-G20 국가들의 입장을 배제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효율성은 얻을 수 있으나 G20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radford 박사는 한국이 회원국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non-G20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G20 회의에는 각국의 20명의 정상들만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하나의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는 장인 만큼, G20 보다는 L20(L: Leader) 회의로, 각 회원국의 리더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G20 회의의 정례화, 각국 의회 및 국회의 G20 회의 참여, 그리고 press conference에 더욱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언론과 정부 간의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non-G20 국가들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G20의 프레임워크 확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G20 회원국들이 해야 할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획일성(Uniformity)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다양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양수길 회장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전 10월 4~5일 양일간 국립호주대학교 명예교수인 Peter Drysdale 박사를 초빙하여 아시아와 G20 간의 협력관계 모색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끝으로 Bradford 박사는 G20은 G8+12의 개념에

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G8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 협의체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KOPEC Youth Delegation 선발

(2010. 6. 17,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아·태지역협력에 관한 젊은층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2010년 10월 19~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제19차 총회 및 관련 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청년대표단(Youth Delegation)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였다. 서울 소재 국제대학원, 국제학부 또는 유사전공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대표단(Youth Delegation)을 구성하여 파견할 예정이다.



향후행사

KOPEC 고위자문회의

(2010. 9월 말경)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의 2010년도 고위자문회의의 9월 말 개최방안이 현재 구상 중에 있다. 가제는 “New vision for APEC in G20 summit year”이며, 정부관계자 및 학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0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20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